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이라는 주제로 1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특색우대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 '동학농민혁명'

## 하늘 품은 함성, 세상 바꾼 울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하는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1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립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행사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 기념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문체부 황희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동학농민혁명 유족, 천도교와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개식 선언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4명(김용선 씨, 문영식 씨, 송영례 씨, 함영욱 씨)

### 경복궁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래 정부 주최 3회째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로  
3·1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근간에 정신 깃들여"  
헌법 전문 반영 추진·다양한 사업 진행 등 다짐

이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 경과 보고,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127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겼다. 또, 이번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을 위한 명예회복식을 진행했다. 황희 장관은 주영체(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에게 기념배지를 수여했다.

이후, 황 장관의 기념사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새야 새야 파랑새야 공연 등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참여자를 발굴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학술연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참여자 3,688명을 찾아내고 유족 1만1,797명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유적지

와 기념시설물을 전수조사하는 등 연차적으로 유적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그 속에 깃든 정신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3·1운동부터 4·19, 5·18, 6·10, 그리고 촛불민주혁명의 근간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반영을 건의하는 등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 이름을 찾게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과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헌법 전문 반영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촉진

## 전북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조성 순항

12월 중 완공 목표 2023년까지 120억원 투자  
시험평가 위한 장비·시설 30여종 구축키로

수상·해양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시스템 실증 및 평가·개발을 담당해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조감도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산업부의 공모과제에 선정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및 실증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 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센터 및 실증단지 사업은 넓은 면적이 필요한 육상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수상 태양광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전북도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의기투합해 2019년 산업부 공모과제로 채택됐다.

센터 및 실증단지는 모듈 부력체, 구조체 등과 같은 구성 제품에 서부터 시스템 단위의 실증 및 평가까지 가능한 종합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2,601㎡, 실증단지는 새만금 방조제 해남이류계소에 800kW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재원을 포함해 총 2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센터는 2020년 6월 착공,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2023년까지 총 120억원

정도를 투자해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시설 30여 종을 구축한다. 센터는 필요 장비를 갖춰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 및 부유체 등 구성 제품의 안정성·내구성·환경성 등에 관한 국내외 시험평가 및 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실증단지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국내 기업 제품의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돼 제품의 품질 및 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국내 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희욱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성능, 실증 및 표준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의 국내외시장 선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경이로운 용담호**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를 비롯하여 충청지역까지 약 150만명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민들은 더 맑고 깨끗한 용담호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수질자율관리제에 적극 동참하며, 1등급(매우좋음) 수질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물, 용담호에서 전북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전안군